

2017년 3월 14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상관계수의 변화: 알파 창출의 기회

• 중화권 증시 동향

원자재 가격 상승에 중국 증시 장중 반등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버다임 외 4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NAVER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음식료 · 담배, 휴대폰/부품, 건설/건자재, 동양생명,
인터로조, 엔씨소프트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레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 외 주 식 | 백찬규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철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3/7(화)	3/8(수)	3/9(목)	3/10(금)	3/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94.05	2,095.41	2,091.06	2,097.35	2,117.59	
	등락폭	12.69	1.36	-4.35	6.29	20.24	
	등락종목	상승(상한)	544(2)	358(2)	327(3)	447(2)	458(2)
		하락(하한)	256(0)	431(0)	448(0)	325(0)	336(0)
	ADR	95.16	94.17	94.98	95.15	95.49	
	이격도	10 일	99.98	100.08	99.94	100.29	101.15
		20 일	100.41	100.43	100.15	100.38	101.25
	투자심리	70	70	60	60	70	
	거래량	(백만 주)	278	381	408	501	379
	거래대금	(십억 원)	3,963	4,517	5,110	5,571	4,576
코스닥	코스닥지수	606.05	605.75	606.13	612.26	615.59	
	등락폭	2	-0.3	0.38	6.13	3.33	
	등락종목	상승(상한)	634(1)	504(1)	473(1)	755(1)	735(3)
		하락(하한)	458(0)	569(0)	614(0)	343(0)	364(0)
	ADR	96.33	96.35	96.47	97.51	98.11	
	이격도	10 일	99.02	99.24	99.56	100.65	101.18
		20 일	98.91	98.89	98.97	99.96	100.47
	투자심리	40	30	40	50	60	
	거래량	(백만 주)	1019	883	885	1245	798
	거래대금	(십억 원)	2,513	2,196	2,589	3,372	2,72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5.2	1,548.0	766.7	201.8	78.4	158.5	105.2	10.0	212.9	81.0
	매도	2,467.6	1,093.5	981.8	380.2	84.7	193.6	102.4	14.0	206.9	38.0
	순매수	-282.4	454.5	-215.1	-178.4	-6.3	-35.1	2.8	-4.1	6.0	43.0
	3월 누계	-429.4	2,206.8	-2,217.0	-2,312.3	-29.0	-112.1	194.3	-18.0	60.0	439.6
	17년 누계	-2,116.3	4,160.1	-3,503.2	-2,368.4	-49.2	-1,582.1	116.1	-267.2	647.5	1,459.4
코스닥	매수	2,453.4	177.5	88.7	22.4	5.4	20.8	22.3	1.3	16.6	11.1
	매도	2,452.1	162.2	101.2	13.8	6.9	28.0	15.9	1.3	35.4	15.1
	순매수	1.2	15.3	-12.5	8.6	-1.6	-7.1	6.4	0.0	-18.8	-4.0
	3월 누계	-37.1	106.1	-55.3	50.4	-30.2	-15.5	2.2	-4.2	-58.0	-13.7
	17년 누계	1,188.2	93.6	-1,167.1	-316.2	-237.5	-324.1	-75.7	-41.0	-172.7	-114.6

상관계수의 변화: 알파 창출의 기회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87배
12MF PBR	0.98배
Yield Gap	8.4%P

-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역, 자산, 업종 간의 상관계수는 빠르게 하락
- ▶ 상관관계 하락은 시장을 지배해 온 단순 risk-on, risk-off 패턴의 변화 시사
- ▶ 낮은 상관계수와 높은 수익분산은 알파 창출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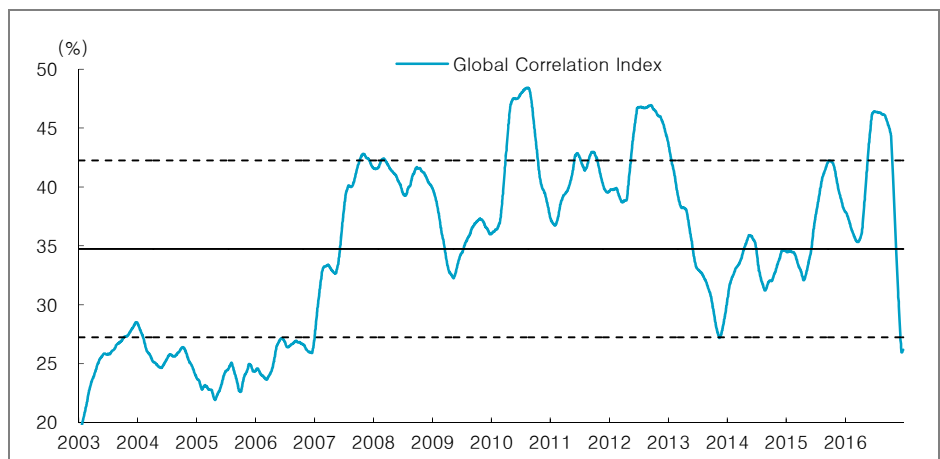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risk-on,
risk-off 트레이드 특세

■ 상관계수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물 중 하나는 자산군들의 동조화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risk-on”과 “risk-off” 정서에 따라 일제히 움직여왔다. 마땅한 모멘텀 부재 속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를 통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아닌 매크로 환경에 따라 위험을 매수, 매도하는 공통적이며 단일화된 움직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risk-on 심리가 확산되며 위험자산들의 상승벨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랠리의 특징은 2008년 이후 밀접한 움직임을 보였던 자산들의 상관관계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지역, 자산, 주식, 통화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Morgan Stanley Global Correlation Index¹는 작년말부터 불과 4개월이 안되는 기간에 빠르게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상관계수는 연말부터 급락



주: 점선 및 실선은 평균±1σ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¹ Global Correlation Index는 cross-regional, cross-sectoral, cross-asset 상관계수의 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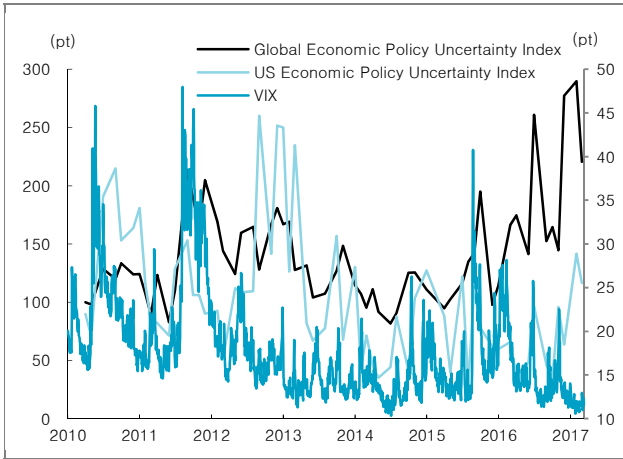
■ 상관계수 하락의 두가지 원인

정책 불확실성에 의한
비동조화 움직임

글로벌 상관계수 하락의 이유는 크게 1) 정책 불확실성과 2) 미국 금융긴축 기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의 현실화 여부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산간 비동조화 움직임을 형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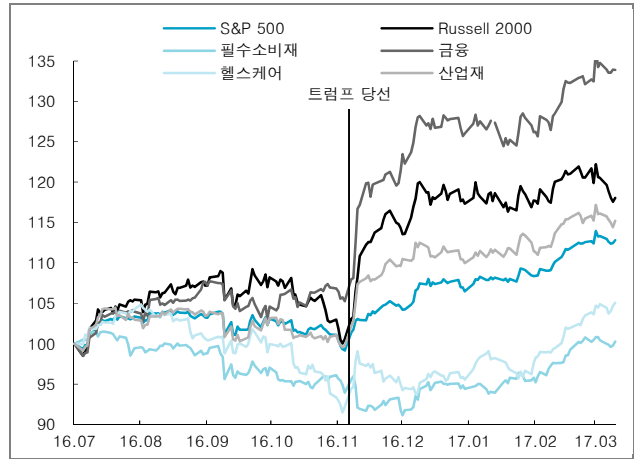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 재정정책 확대, 세금개혁 등의 계획은 S&P 500 지수내 수혜업종(금융, 산업재, 소형주 등)과 피해업종(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대형주 등)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림 3]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업종들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미국 대선 이전 서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금융, 산업재, Russell 2000(소형주 proxy)와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S&P 500(대형주 proxy) 간 격차가 벌어지며 명확한 winner와 loser를 가르고 있다.

[그림 2] 정책적 불확실성은 증가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S&P 500 수혜, 피해 업종 di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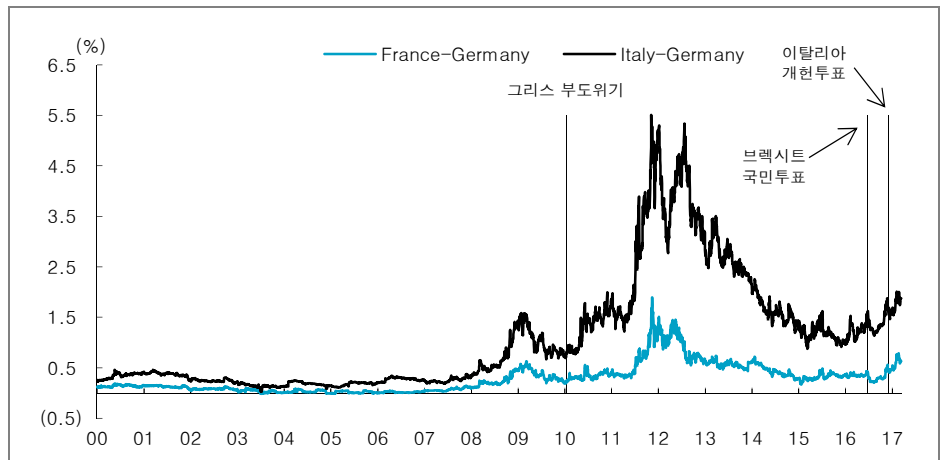
주: 2016/07/01 = 10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유럽의 정치 리스크

유럽 또한 정책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선거 일정을 앞두고 기득권 세력이 지지율을 잃고 EU 탈퇴, 반(反)이민자, 자국주의(nationalistic)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정당들이 인기를 얻으며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과 이탈리아 오성운동(5 Star Movement)의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상승, 유럽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독일 국채 금리는 하락하며, 금리 스프레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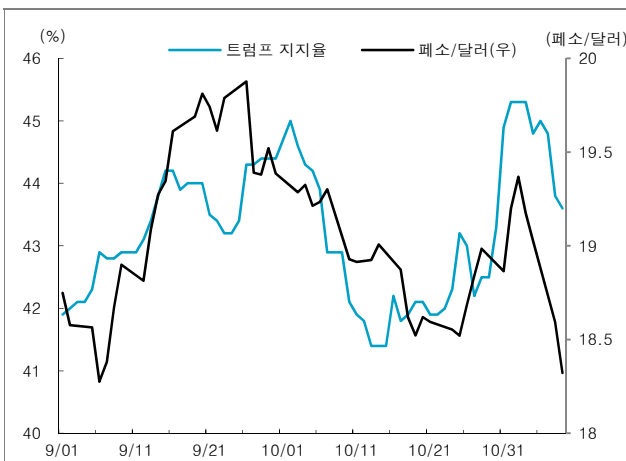
특히 마린 르펜 후보의 지지율과 프랑스 - 독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매우 흡사한 방향성을 띄고 있는데, 마린 르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프랑스-독일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자산가격에 반영이 되었었다.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에 대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극우정당의 집권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며 유럽내 경제 1, 2위 국가간의 국채 금리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의 펀더멘털이 아닌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한 값이다.

[그림 4] 프랑스/이탈리아 -독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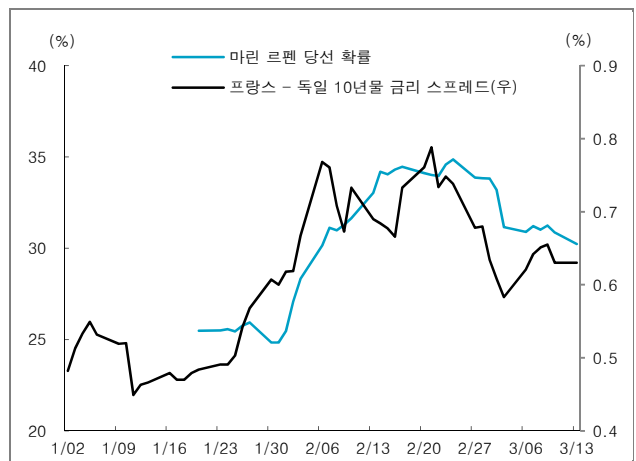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트럼프와 페소/달러



주: 2016년 9월부터 당선까지의 지지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르펜 후보와 프랑스-독일 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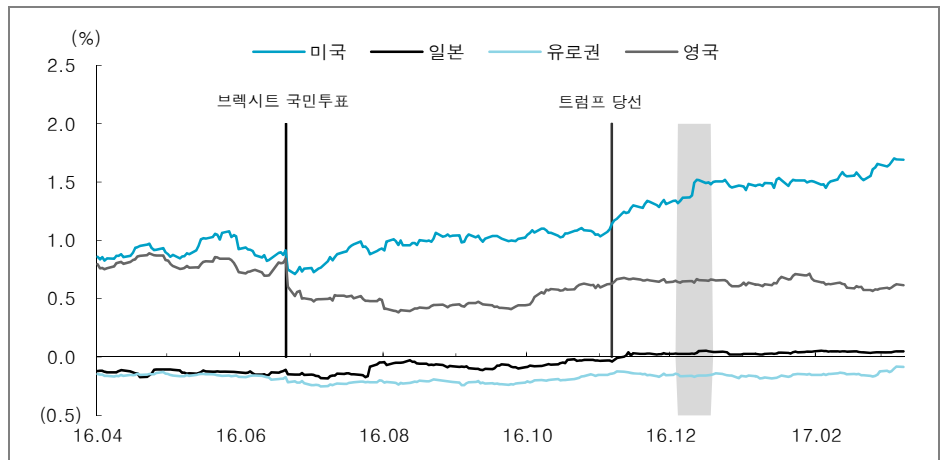


자료: Oddschecker,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경기회복에 힘입어 긴축에
들어간 미국

2008년 이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던 미국, 유럽, 일본 중 미국은 경기회복 국면에 먼저 들어서며 금리인상 여력을 갖추었다. 작년 12월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 Fed는 3번의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ECB와 일본은행 또한 긴축에 시선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 더딘 경기회복을 보이며 저금리 기조는 일시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CB는 작년 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2017년 12월 까지 연장하였고, 일본 또한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림 7] 주요 국가 선도금리 추이



주: 주요 국가 2년 선도금리, 음영 표시는 ECB, Fed, BoJ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된 구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러한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은 차별화된 금리 움직임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금리는 빠르게 상승, 부진한 유로존, 일본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점차 벌어졌다. 미국이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주요 선진국가들과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수 있다.

■ 상관관계 변화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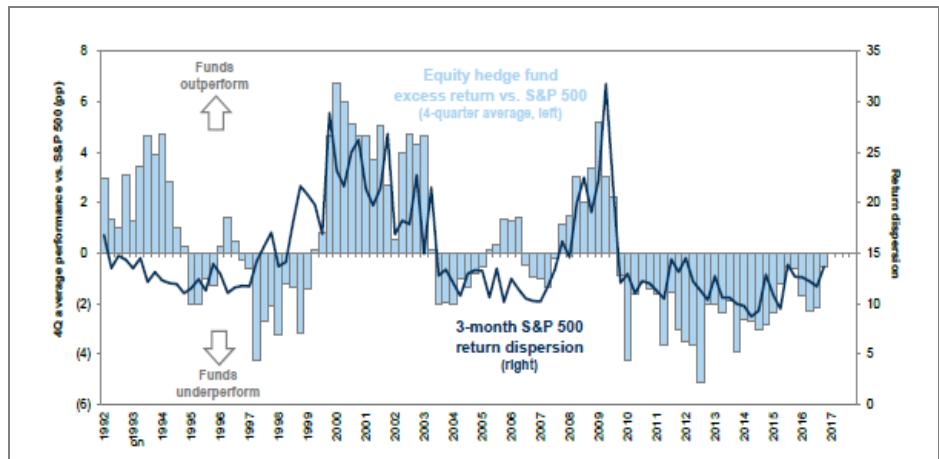
펀더멘털 중심의 차별화된
밸리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과 자산에 동조화,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저금리와 QE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던 결과였을 것이다. 자산, 지역간 상관관계는 시장에 극단적인 두려움과 극단적인 낙관주의가 만연할 때 상승한다. 최근 자산간 상관관계 하락은 2008년부터 시장을 지배해 온 단순 risk-on, risk-off 패턴의 변화를 암시한다. 변화의 원인은 앞서 지적한 정책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7, 8년만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한편으로 앞으로 자산간 수익률이 해당자산의 펀더멘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lpha 창출 기회

시장은 낮은 상관관계 값과 높은 수익분산(return dispersion)을 기록할 때 알파 창출 기회가 높다. 분산은 상승폭이 큰 종목과 하락폭이 큰 종목 간의 괴리를 측정하는데, 이 격차가 클수록 stock picking, 즉 알파 창출 기회가 높아진다. 아래 그림은 헤지펀드의 S&P 500 대비 초과수익률과 수익분산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산이 높을 때 헤지펀드의 초과수익률 또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헤지펀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S&P 500 수익률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다. 2008년 이전 수익분산은 시장환경에 따라 큰 폭의 상승, 하락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낮은 값에 정체되며 알파 창출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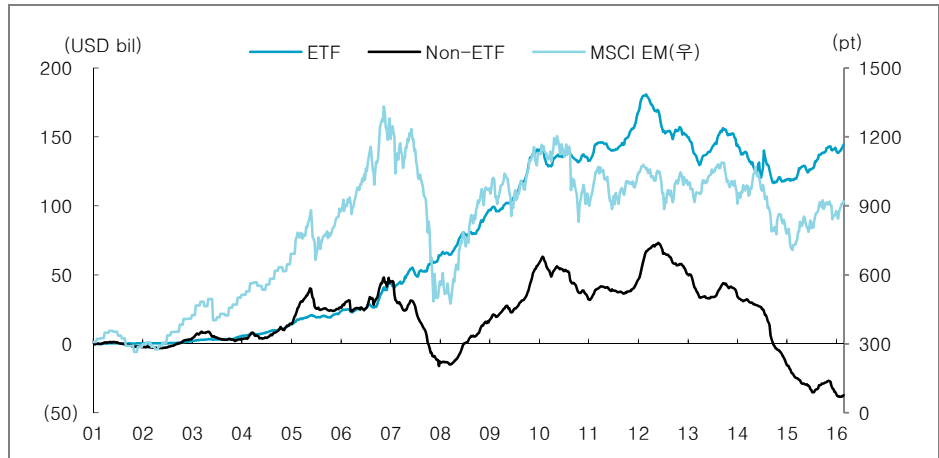
[그림 8] 헤지펀드 수익률과 수익분산(return dispersion)



자료: Golman Sachs, 한국투자증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에 불구하고 주가지수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해온 헤지펀드들을 대신해 패시브 투자가 대세의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액티브 펀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반면, 패시브 투자로는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다. Stock picking을 통한 초과수익 창출보다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을 더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9]는 신흥국 시장 ETF로의 누적 자금유입과 non-ETF 펀드로의 누적 자금유입을 보여주는데, 2008년 이후 패시브 투자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림 9] 신흥국 시장으로의 ETF, non-ETF 펀드플로우 추이



자료: EPFR,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자산간 상관관계, 패시브 펀드로의 자금유입 지속은 액티브 펀드와 알파 창출에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자산간 상관관계의 급격한 하락은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Stock picking과 알파 창출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지금이 어찌면 반대로 기회의 시기일 수 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중국 증시 장중 반등

- ▶ 상해종합지수는 0.8% 상승, 안정적인 경제 성장 기대감 부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호재
- ▶ 홍콩H지수는 1.9% 상승, 은행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 견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8% 상승,
방산, 귀금속, 석탄, 비철금속,
양조 등의 업종 상승

상해종합지수는 0.8% 상승한 3,237p로 마감했다. 하락 출발한 증시는 장중 3,200선이 붕괴됐으나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거래대금은 2,069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약 19% 증가했다. 지난 주말 국무원에서 중국 경제의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L자형 성장 구간에서 수평적 성장세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내일 발표될 1~2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됐다. 금일 선물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4% 이상 급등하는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비철금속, 석탄 등의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됐으나,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증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방산, 귀금속, 석탄, 비철금속, 양조, 보험 등 대부분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다. 기술주들의 강세 속에 차스닥 지수도 1.1% 반등한 1,971p로 마감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상해주식을 매도하고 심천주식을 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9% 상승,
부동산, 소재, 금융, 유틸리티 등 대부분 업종 상승

홍콩H지수는 1.9% 상승한 10,259p로 마감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 폭이 확대됐다.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단기자금조달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의 세후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은행주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또한 본토자금과 해외자금의 유입이 이어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소재, 금융, 유틸리티 등 대부분의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홍콩증시의 상대적 강세 속에 A/H 프리미엄지수는 117.4p로 하락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3/13 (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37.02	0.76	0.10	0.63	4.30
심천종합	2,029.89	0.81	0.21	3.32	3.09
차스닥	1,970.88	1.07	0.41	2.99	0.45
홍콩H	10,258.71	1.88	0.86	0.01	9.19
Shibor 7일물 금리(% , %p)	2.65	-0.23	-0.23	0.99	4.17
Shibor 1개월 금리(% , %p)	4.12	0.18	0.42	2.93	24.70
중국국채 3년물(% , %p)	2.92	-0.18	0.94	-1.12	1.18
위안/달러 고시환율	6.8988	-0.20	-0.06	0.13	-0.55
역내 위안/달러	6.9086	0.01	-0.17	-0.41	0.53
역외 위안/달러	6.8950	0.00	0.09	-0.30	1.18

주: 13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 연중 최고치 기록

- 뉴욕증시가 금리 인상 경계감 속 고용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2,100P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2,122P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며 2,117P로 마감, 2년래 최고치를 기록.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하며 사흘 연속 상승 마감. 지난주 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전자 업체인 하만 인수 절차 완료 및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보통주 및 우선주 1주당 각각 5,700원, 5,72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한 S-Oil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는 우선협상대상자 중국 더블스타와 채권단의 계약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주들의 신고가 경신. 또한,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일자리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창업투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연일 강세를 보임. 반면, 129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베투얼텍이 급락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철강제품 제재 우려에 현대비앤지스틸을 비롯해 일부 철강주가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삼성전자(005930) ▶2,030,000 (+1.05%)	하만 인수 및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하만 인수 절차 완료 소식에 신고가 경신. 하만은 연매출 70억달러, 영업이익 7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오디오·전자업체임 - 아울러,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와 반도체 부문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 9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
은행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강세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 및 올해 1분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상승 전환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에 연일 강세 - 하나금융지주(086790, +5.09%), 신한지주(055550, +3.59%), KB금융(105560, +3.47%), BNK금융지주(138930, +3.03%), 우리은행(000030, +1.84%) 등 강세
화장품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강세 -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및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 에이블씨엔씨(078520, +5.61%), 한국화장품(123690, +4.79%), 한국콜마홀딩스(024720, +4.18%), 잇츠스킨(226320, +3.66%), 코스온(069110, +3.1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아모텍(052710) ▶25,950 (+3.80%)	- 스마트폰 시장 메탈 케이스 비중 증가 및 고집적화 추세로 세라믹칩 부문의 견조한 성장 및 자동차항 매출 증가 등에 따른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신고가 행진
아남전자(008700) ▶2,635 (+25.78%)	-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하만카톤에 제품을 공급 중인 동사의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에버다임 외 4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버다임 (041440)	10,500 (-3.2)	10,850 (2/02)	- 국제유가 반등과 건설 수요 증가 등의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미국, 중동, 동남아 중심의 콘크리트 펌프카 해외 매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노후 재난 방지 시설에 대한 점검 속도가 빨라지며 소방 사다리 차량 교체 매출이 확대될 전망
에코프로 (086520)	12,550 (+12.1)	11,200 (1/16)	- NCA 양극활 물질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설비증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중국 최대 금속재생기업이자 양극업체인 GEM사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인건비 절감, 원재료 조달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되며 영업력이 확대될 전망
휴니드 (005870)	13,050 (-4.0)	13,600 (12/29)	-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TICN(군 종합전술정보 통신체계)프로젝트 향 HCTRS(대용량 무선전송체계) 납품이 16년 9월부터 본격화됐고 4분기 실적에 반영되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방산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방산매출 이외에 민간 업체 매출도 확대될 전망
베셀 (177350)	6,140 (-5.0)	6,460 (12/29)	-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LCD 생산라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정된 투자 스케줄에 따라 In-Line 시스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과 Tianma 향 OLED 장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유니트론텍 (142210)	9,460 (+6.2)	8,910 (12/29)	-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다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이 더욱 확대되어 외형 성장 전망 - 조인트벤처인 '유니트론텍차이나'를 통해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NAVER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NAVER (035420)	826,000 (+2.1)	809,00 (03/03)	4,633	1,372	973	32,386	25.5
			- 미국 ‘스냅챗’ 상장에 따라 사진 중심의 메신저인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예상 - 인공지능경망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이어 웹브라우저 ‘웨일’, 음성비서 ‘클로바’ 등 적극적인 R&D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기술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SK텔레콤 (017670)	245,000 (+5.2)	233,000 (03/03)	17,402	1,773	2,032	28,774	8.5
			-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6조원, AI,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사업에 5조원, 총 합계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 CEO교체에 함께 M&A위주의 경영전략 변화, SK플래닛 정상화, 연결실적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씨엠에스에듀 (225330)	26,600 (+0.6)	20,450 (02/07)	66	14	11	2,567	10.4
			- 2018년부터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낮아지고, 주요 대학의 이공계 입시 정원이 확대되어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전망 -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급학교와 학생 수가 확대될 전망. 4%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예상				
청담러닝 (096240)	16,850 (-6.9)	18,100 (12/29)	163.1	27.8	15.1	2,194	7.7
			-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 -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라인에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 -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				
CJ E&M (130960)	79,600 (+12.3)	70,900 (12/29)	1,643	98	89	2,304	34.5
			- 퀄리티와 흥행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유통 및 광고 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 부문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호전이 지속될 전망 -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지분법적용대상 ‘넷마블게임즈’ 상장 추진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				
이마트 (139480)	208,000 (+13.7)	183,000 (12/29)	14,600	501	296	10,619	19.6
			- 간편식의 수요 증가가 편의점을 넘어 이마트로 확산되는 중. 피코크 등 PL상품 판매 확대로 상품마진이 상승하고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상품차별화로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협상력 개선에 따른 마진 상승과 매출증가의 선순환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NAVER,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음식료 · 담배: 16/17년 곡물 재고율 상승 → 곡물가격 약보합 지속 전망

■ 2016/17년 세계 재고율 전망치: 소맥, 옥수수, 대두 모두 상승

미국 농무성(USDA)이 10일(현지 시간 9일)에 3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이하 WASDE)를 발표했다. 2016/17년 곡물의 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소맥, 옥수수, 대두 모두 상승하였다. 16/17년 재고율은 소맥 33.7%(1월 전망치 33.6%), 옥수수 21.2%(21.1%), 대두 25.0%(24.3%)를 기록했다. 15/16년 재고율은 소맥 33.7%(1월 전망치 33.8%), 옥수수 21.9%(21.9%), 대두 24.3%(24.5%)를 기록했다.

■ 예상 밖 작황 호조가 소비 증가 상쇄

16/17년 소맥: 이번에 전망된 16/17년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100)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다. 세계 공급 전망은 생산이 2.8만톤 상향돼 전월대비 0.2% 높게 조정되었다. 생산 전망 상향은 호주의 생산이 작황 호조로 2.0백만톤 증가한 것이 주효하였다. 한편 16/17년 소비 전망은 인도의 사료용 소비가 1.3백만톤 늘어 총 1.0백만톤 증가했다. 소비보다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해 기말재고는 1.3백만톤 증가하였다.

16/17년 옥수수: 16/17년 세계 기말재고율 전망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9.5백만톤 상향되었다. 이는 경작지 확대와 우호적인 기후로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의 생산 전망이 높아진 것이 주효했다. 세계 소비 전망은 6.4백만톤 상향되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에탄올 원료용 등 산업용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16/17년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월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4.2백만톤 증가했다. 브라질 생산이 풍부한 강수 등 우호적인 기상 요건으로 4.0백만톤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소비는 전월대비 0.9백만톤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브라질의 사료용 수요가 0.5백만톤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한편 미국 농무성은 미국의 16/17년 대두가격을 15/16년(9.45달러/부셸) 대비 -1.6%~+4.8% 수준인 부셸당 9.3~9.9달러로(2월 예측치 9.1~9.9달러) 지난 달 대비 각각 +2.2%~보합으로 관측하여 중간 값은 10센트 상승하였다.

■ 아직은 곡물가격 상승 단정짓기 어려운 듯

지난달에는 곡물재고율 전망 하향을 근거로 곡물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달간 곡물가격은 예상과 소맥 -1.9%, 옥수수 -1.6%, 대두 -3.1%, 원당 -14.7%를 기록했다.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증가 기대로 반등의 기미를 보이다, 미국과 브라질의 작황이 개선되고 인도의 원당 생산 부족 전망이 약해지면서 곡물가격은 다시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들 지역의 작황 개선이 강조되며 16/17년 세계 곡물 재고율 전망치가 한단계 낮아졌다. 트럼프행정부의 바이오에탄올산업과 관련된 정책도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곡물투기세력의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달러 기준 곡물가격은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료업종은 원화환산곡물 재료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1년여간의 주가 하락으로 주가 배수가 충분히 하락해 있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이번 달 Top picks은 매일유업, CJ제일제당, 농심, 빙그레다. 매일유업은 우수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CJ제일제당은 라이신가격이 더 떨어지기 어려운데다 valuation도 매력적이다. 농심은 경쟁사의 가격 동결과 사드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빙그레는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빙과와 유음료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돼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대폰/부품: 무선충전은 중저가폰을 향해 간다

■ 삼성전자, LG전자 및 애플 flagship 스마트폰의 새로운 공통 분모는 무선충전

애플이 차기 신규 모델인 아이폰8에서 무선충전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삼성전자, LG전자 및 애플의 flagship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공통 분모는 무선충전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삼성전자는 2015년 갤럭시S6부터 무선충전기능을 flagship 스마트폰에만 채택하고 있고, 2) LG전자는 4월 7일(예상)에 출시될 G6의 미주향 모델에, 3) 애플은 9월 중순에 출시될 아이폰8에 무선충전기능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메이주, 화웨이 등도 연말이나 내년초에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무선충전기능을 장착하는 스마트폰 모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 후면을 메탈소재 대신 강화유리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 하반기 A시리즈에서는 무선충전을, J시리즈에서는 삼성페이를 볼 수 있다

1) 연초에 공개된 2017년형 갤럭시 A시리즈(A3/A5/A7)에서는 삼성페이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상반기내로 공개될 A시리즈의 상위 모델(A8/A9 Pro)에는 하위 모델과 차별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무선충전모듈이 장착될 것이다. 2) 5월경에 스펙공개가 예상되는 2017년형 J시리즈 중에서도 상위 모델(J5/J7)에는 하위 모델과 차별화 포인트를 주기 위해 삼성페이 기능이 채택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에 삼성전자가 메탈케이스의 외관 마감방법(CNC 혹은 일반 도장)으로 시리즈 내에서 차이를 두었던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CNC는 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정밀공작기계를 이용한 공법).

■ 삼성전자의 NFC 안테나 조달 금액은 전년대비 최소 50% 성장 예상

삼성전자의 NFC 안테나 조달 금액은 전년대비 최소 50% 성장한 2,446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했다. 1) 2017년형 A8/A9 Pro가 3-Combo 안테나(NFC+삼성페이+무선충전)를 채택하고, 2) 2017년형 J5/J7이 2-Combo 안테나(NFC+삼성페이)를 장착하며 3) 나머지 중저가 모델(J1~3, On5~7 등)은 NFC만을 채택한다. 앞서 언급한 J5/J7 모델들이 2-Combo 대신 3-Combo 안테나를 장착한다면 이러한 NFC 안테나 조달 금액은 전년대비 8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2).

■ 국내 NFC 안테나 supply chain에 재조명 필요

국내 NFC 안테나 supply chain에 재조명이 필요하다. 1) 애플 및 LG전자가 무선충전 기능을 채택하면서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무선충전/삼성페이 기능을 중저가폰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고, 2) 특히 애플의 무선충전기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다면 삼성전자 또한 무선충전기능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supply chain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아모텍(052710, 매수/TP 32,000원), 삼성전기(009150), EMW(079190), 한솔테크닉스(004710), 알에프텍(061040), 캠프로닉스(089010), 아이애크(226350), 뉴프렉스(085670), 디에이피(066900). 당사 예상대로 1) 삼성전자의 2017년 NFC 안테나 조달 금액이 전년대비 50% 증가할 경우 아모텍의 2017년 EPS는 현재대비 5% 상향조정 가능하고, 2) 2017년 NFC 안테나 조달 금액이 전년대비 80% 증가할 경우 아모텍의 2017년 EPS는 현재대비 9% 상향조정 가능하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건설/건자재: 탄핵 후 주택시장, 주거복지로 전환 예상

■ 탄핵 기각 대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탄핵이 인용되며 5월 대선이 확정되었다. 탄핵 기각 시 연말까지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4~5월 분양 휴식기가 예상된다.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은 2.4만세대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전년 1~2월 연중 가장 저조했던 탓). 성수기인 봄 분양시즌은 3월 7일부터 5월로 전국 11.6만 가구의 분양(일반분양 9.9만가구)이 예정돼 있다. 전년대비 9% 감소한 수준이나 여전히 많은 물량으로,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 추진 중인 재건축이 가격 지탱의 요인

지난 2년간 공급 증가로 지역별 양극화는 불가피하며 과잉 공급된 일부 지방은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핵심 지역들이 가격 부양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올해 분양이 예정된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는 고덕주공 7단지 롯데캐슬(4월), 고덕주공 3단지(5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6월), 고덕주공 5단지 아이파크(9월), 구마을 1지구 푸르지오(10월), 디에이치반포(11월) 등이다. 특히 내년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단지들이 있다. 즉, 올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한다.

■ 향후 주거복지로 정책 전환 불가피

탄핵 후 관심이 모아지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주택정책은 개발과 거래량 띄우기보다 주거 복지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이 강화될 것이다. 마침 지난 8일, 국토부는 주거 지원에 집중한 ‘2017년 주거종합 계획’ 을 발표했다. 1)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2) 뉴스테이 6.1만가구 사업지 확보, 2.2만가구 분양(전년대비 1만호 증가) 등이다. 행복주택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며 뉴스테이는 중산층 이상을 위해 제도 혜택을 받아 민간이 공급하는 것으로, 주체는 다르지만 모두 공공성이 있다. 결국 공공임대와 분양/민간임대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그림 1]. 이에 따라 아파트 공급은 2016년 45만호에서 2017년 38만호로 연착륙을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도 공급절벽의 가능성은 낮다.

■ 주택 밸류체인에서 LG하우시스, 한샘 추천

향후 주택시장은 1) 공공주택 비중 상승(2016년 23%→2017년 33%), 2) 민간 공급은 재건축 위주로 재편, 3) 주택 가격은 지역별 양극화의 특징을 보일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의 재원 마련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영속형 전통 리츠는 아니지만 리츠구조를 차용한 주택공급과 금융상품 발달이 예상된다. 주택 거래는 실수요 위주로 연 1백만건 내외의 안정세를 떨 것이다. 따라서 차익거래를 노린 주택매매 대신 기존주택의 ‘거주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밸류체인에서 공급자인 건설사보다 거주 리모델링 증대의 수혜를 입을 LG하우시스와 한샘을 추천한다. LG하우시스는 B2C 창호 매출의 추세적 증가, 미국 등 수출 건자재주로 부상, 슬로바키아 ‘c2i’ 인수로 경량화소재 사업의 손실 축소가 투자포인트다. 상반기는 자동차부품과 중국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상기 요인으로 실적 개선을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동양생명(082640)

매수(상향)

목표가: 13,600원(상향)

종가(3/10): 10,850원

대규모 총당금 반영, 유상증자 이후 더 나빠질 여지 없다

■ What's new : 육류담보손실 총당금 반영으로 4Q 적자전환

동양생명의 4Q16 순손실은 2,12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4Q에 육류담보대출 총당금 3,176억원, 변액보증옵션 적립금 180억원을 선반영했다. 지난 2월 초 동양생명은 4Q16에 약 2,662억원(전체 대출의 70% 규모)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회계법인의 재고 실사 후 전체 대출의 83.5%에 달하는 총당금을 일시 적립했다. 4Q 대규모 손실 반영 후 2016년 연간 순이익은 54억원으로 전년 대비 96.4% 감소했다. 순이익은 부진하지만 투자자를 배려해 전체 배당금은 204억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DPS는 200원, 배당수익률은 1.5%이다.

■ Positives : 4Q16 총당금 설정 후 2017년 턴어라운드 예상

동양생명은 채권단과 육류담보물 공동매각 합의를 마치고 조기에 첫 공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공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전체 대출규모 6,000억원의 약 10% 가량인 6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잔여 대출금은 627억원으로 추가 손실 반영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담보물 매각에 나선 상황이고, 일부 손실을 감안해도 2017년 실적 정상화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우리는 2017년 동양생명 순이익을 2,147억원(+3,846.4% YoY) ROE 10.4%(+10.1%p YoY)를 예상한다.

■ Negatives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283억원 결정, RBC 235% 예상

연내 예정된 RBC 제도 강화를 대비해서 약 5,283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대주주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년 11월 이사회에서 6,246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기준가격 변경 후 최종 증자규모는 15% 감소한 5,283억원 이다(할인율 10% 적용). 동양생명의 4Q16 RBC는 182%로 71.0%p 하락했다. 1) 금리 상승 후 채권평가이익 감소로 38%p 하락, 2) RBC 제도 강화로 10%p 하락, 3) 육류담보대출 총당금 설정으로 23%p 하락이 RBC 변동 배경이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RBC는 약 235%로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시 안방보험이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지원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2017년-2018년 제도 강화를 대비한 선제적 증자이기에 조기에 증자 필요성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 결론 :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13,600원

유상증자 이후 동양생명의 4Q PBR은 0.72배로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반감된다(삼성생명 0.68배, 한화생명 0.59배, 미래에셋생명 0.47배). 그러나 4Q 대규모 총당금 설정, 유상증자 결정 등으로 악재는 주가에 기반영 된 것으로 판단한다. 2017년 실적 정상화를 가정 시 순이익은 2,147억원, ROE는 10.4%이다. 2017년 배당성향을 35.5%(2015년 기준)로 가정 시 DPS는 490원, 배당수익률은 4.5%이다. 배당성향을 25%로 하향 시 DPS는 340원, 배당수익률은 3.1%이다. 유상증자 후 안방보험의 지분율은 기존 63.0%에서 75.3%로 높아진 만큼 고배당에 대한 회사의 의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2016년은 이례적 손실로 배당 매력을 상실했지만, 기존 투자포인트는 유효하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낮지만,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인 주가 수준이다. 악재는 선반영되었고 2017년 실적 정상화, 금리 모멘텀, 배당 매력을 감안 시 편만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13,6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FY17~FY18 ROE 10.0%, 조정 CoE 10.9%, 4Q Fwd BPS 15,017원을 통해 산출한 적정 PBR 0.9배를 적용했다. 현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25.3%이다.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보험영업수익	1,649	1,239	(24.9)	1,343	(12.7)	32.5	6,551	4,914
보험손익	875	510	(41.7)	694	(32.4)	57.6	4,106	2,205
투자손익	184	(116)	NM	151	NM	NM	857	896
당기순이익	24	(213)	NM	(55)	NM	NM	265	172
보험지급비율	30.0	76.1	46.0		41.6	29.1	22.4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인터로조(119610)

매수(분석재개)
목표가: 48,000원
종가(3/10): 37,700원

고수익성에 고성장을 더한다

■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8,000원 제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8,000원을 제시하며 분석을 재개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목표 PER 21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목표 PER은 대만 ODM 경쟁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던 시기의 평균 PER 밴드 하단 수준이다. 2016~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각각 26.1%, 3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레버리지효과를 누리는 구간이다.

■ 원데이뷰티렌즈를 앞세워 국내 점유율 상승세 지속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점유율이 14%로 2위까지 상승했다. 원데이뷰티렌즈의 점유율은 더욱 높다. 2017년 국내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419억원으로 예상된다. 높은 품질에 합리적 가격과 수지를 광고모델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다. 국내 안경원 7천여개 중 5천개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올해 50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침투율 상승과 품질 경쟁력으로 점유율이 매년 3%p 높아지는 추세로 이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 브랜드 업체로 ODM의 한계를 극복할 것

2011년 자체 브랜드 ‘클라렌’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B2C 성격이 강한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중장기 성장을 지속하려면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하다. ‘클라렌’은 국내 점유율 2위로 시장에 안착하는데 성공해 대만 ODM 업체와는 다른 성장 스토리가 예상된다. 2018년 이후 3공장을 증설해 금액 기준 capa는 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체 브랜드 판매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45	9	7	689	(18.4)	12	27.5	16.8	3.3	12.7	0.4
2015A	60	16	13	1,175	70.5	20	32.3	20.1	5.5	18.6	0.3
2016F	74	24	19	1,768	50.5	28	21.5	14.3	4.5	23.0	0.5
2017F	93	29	23	2,144	21.3	33	17.6	11.8	3.6	22.6	0.6
2018F	119	36	30	2,757	28.6	41	13.7	9.4	2.9	23.6	0.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엔씨소프트(036570)

매수(유지)

목표가: 370,000원(유지)

종가(3/10): 290,000원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만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

■ 우려는 우려일 뿐

최근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1) '리니지 레볼루션' 매출 감소, 2) '리니지 1' 트래픽 하락, 3) 중국 진출 지연 등의 원인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리니지 레볼루션'의 경우 출시 초기 대비 매출 수준이 하락했으나 1분기 일평균 매출액은 5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리니지 1' 트래픽 하락은 BOT 제거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 드래곤 보물 상자 매출 선반영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 또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진출 지연 영향도 제한적이다. '파이널 블레이드'가 양호한 성과를 유지 중이며 연이은 모바일 게임들의 성공을 감안할 때 기대작인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 호조에 따른 매출 성장이 중국 매출 제거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우려와는 달리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RK'와 '파이널 블레이드'를 연이어 흥행 시키며 모바일 게임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특히 두 게임 모두 최근 대세 장르로 떠오른 MMORPG가 아님에도 양호한 성과를 시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바일 게임 운영 능력도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리니지 M'의 경우 리니지 IP의 활용으로 초기 사용자 유입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니지 레볼루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유료이용자 비율도 높을 것이다. 또한 '리니지 RK'의 초기 매출 수준을 감안할 때 '리니지 M'의 초기 성과는 우리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C 게임 내에서만 가능했던 아이템 거래 기능 추가 또한 언급되고 있어 기존 모바일 게임과의 차별화를 통한 흥행이 기대된다.

■ 매수 의견 유지,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만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

엔씨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70,000원(17EPS에 Target PER 19.7배 적용)을 유지한다. 중국 정부의 환호 관련 정책을 감안해 '리니지 레볼루션'과 '리니지 RK' 중국 매출을 제외했으며 '리니지 1' 매출을 5.9% 하향했다. 하지만 '파이널 블레이드' 매출 반영과 '리니지 M'의 매출 추정치 상향으로 17F EPS를 기존 대비 2.3% 상향했다. 모바일 게임 업종 특성 상 흥행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 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들의 양호한 성과, 2) 모바일 MMORPG 시장 개화에 따른 모바일 게임 이용자 증가에 대한 수혜, 3) 흥행 IP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리니지 M'의 성과가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 추정치를 상회하는 '리니지 M'의 성과와 리니지 IP 기반 모바일 게임들의 연내 중국 출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839	278	230	11,520	44.7	315	15.8	9.5	2.7	18.4	1.9
2015A	838	237	165	7,633	(33.7)	272	27.9	13.7	2.6	10.6	1.3
2016A	984	329	270	12,671	66.0	361	19.5	12.8	2.8	14.5	1.5
2017F	1,315	494	395	18,604	46.8	525	15.6	10.1	2.8	18.8	1.9
2018F	1,517	602	479	22,574	21.3	634	12.8	8.0	2.5	19.9	2.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3/7(화)	3/8(수)	3/9(목)	3/10(금)	3/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94.05	2,095.41	2,091.06	2,097.35	2,117.59	
	등락폭	12.69	1.36	-4.35	6.29	20.24	
	등락종목	상승(상한)	544(2)	358(2)	327(3)	447(2)	458(2)
		하락(하한)	256(0)	431(0)	448(0)	325(0)	336(0)
	ADR	95.16	94.17	94.98	95.15	95.49	
	이격도	10 일	99.98	100.08	99.94	100.29	101.15
		20 일	100.41	100.43	100.15	100.38	101.25
	투자심리	70	70	60	60	70	
	거래량	(백만 주)	278	381	408	501	379
	거래대금	(십억 원)	3,963	4,517	5,110	5,571	4,576
코스닥	코스닥지수	606.05	605.75	606.13	612.26	615.59	
	등락폭	2	-0.3	0.38	6.13	3.33	
	등락종목	상승(상한)	634(1)	504(1)	473(1)	755(1)	735(3)
		하락(하한)	458(0)	569(0)	614(0)	343(0)	364(0)
	ADR	96.33	96.35	96.47	97.51	98.11	
	이격도	10 일	99.02	99.24	99.56	100.65	101.18
		20 일	98.91	98.89	98.97	99.96	100.47
	투자심리	40	30	40	50	60	
	거래량	(백만주)	1019	883	885	1245	798
	거래대금	(십억원)	2,513	2,196	2,589	3,372	2,725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5.2	1,548.0	766.7	201.8	78.4	158.5	105.2	10.0	212.9	81.0
	매도	2,467.6	1,093.5	981.8	380.2	84.7	193.6	102.4	14.0	206.9	38.0
	순매수	-282.4	454.5	-215.1	-178.4	-6.3	-35.1	2.8	-4.1	6.0	43.0
	3월 누계	-429.4	2,206.8	-2,217.0	-2,312.3	-29.0	-112.1	194.3	-18.0	60.0	439.6
	17년 누계	-2,116.3	4,160.1	-3,503.2	-2,368.4	-49.2	-1,582.1	116.1	-267.2	647.5	1,459.4
코스닥	매수	2,453.4	177.5	88.7	22.4	5.4	20.8	22.3	1.3	16.6	11.1
	매도	2,452.1	162.2	101.2	13.8	6.9	28.0	15.9	1.3	35.4	15.1
	순매수	1.2	15.3	-12.5	8.6	-1.6	-7.1	6.4	0.0	-18.8	-4.0
	3월 누계	-37.1	106.1	-55.3	50.4	-30.2	-15.5	2.2	-4.2	-58.0	-13.7
	17년 누계	1,188.2	93.6	-1,167.1	-316.2	-237.5	-324.1	-75.7	-41.0	-172.7	-11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도
	순 매 수		
서비스업	7,770	미분류	-52,327
증권	4,692	화학	-11,298
은행	2,249	철강금속	-8,097
SK	8,692	KODEX 200	-27,171
삼성전기	5,461	KODEX 레버리지	-17,855
S-Oil	3,694	삼성전자	-7,978
SK하이닉스	2,120	TIGER 레버리지	-7,623
대림산업	2,049	SK텔레콤	-5,632

	연 기 금		순 매 도
	순 매 수		
서비스업	21,340	미분류	-26,128
전기전자	8,515	화학	-21,475
보험업	4,247	철강금속	-9,016
NAVER	16,512	KODEX 200	-9,661
SK하이닉스	4,398	KB금융	-6,075
SK이노베이션	3,952	SK텔레콤	-5,869
LG	3,693	롯데케미칼	-5,859
삼성바이오로직스	3,222	LG화학	-4,76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도
	순 매 수		
은행	409	미분류	-76,993
화학	359	철강금속	-2,400
건설업	277	운수장비	-2,110
KBSTAR 200선물인버스2X	9,011	KODEX 레버리지	-62,521
KODEX 인버스	1,559	TIGER 레버리지	-14,295
S-Oil	936	KODEX 200	-3,606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868	KINDEX 200	-3,344
LG디스플레이	562	KODEX 은행	-2,801

	보 험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5,785	미분류	-22,631
증권	4,510	철강금속	-8,987
서비스업	4,311	운수장비	-4,899
SK하이닉스	3,406	KODEX 200	-9,949
엔씨소프트	2,866	TIGER 200	-7,085
삼성전기	2,234	고려아연	-6,134
LG	2,012	KBSTAR 200	-3,024
S-Oil	1,966	현대중공업	-2,98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도
	순 매 수		
증권	11,555	미분류	-70,998
은행	5,046	화학	-60,858
의약품	2,615	철강금속	-45,272
KODEX 레버리지	41,723	삼성전자	-35,169
SK하이닉스	14,270	KODEX 인버스	-31,523
NAVER	12,714	KODEX 200선물인버스2X	-30,885
삼성전기	11,115	롯데케미칼	-24,065
SK	9,570	TIGER 200	-17,142
미래에셋대우	5,846	KB금융	-16,193
S-Oil	4,137	고려아연	-12,932
KODEX 200	3,977	POSCO	-12,732
삼성바이오로직스	3,101	하나금융지주	-12,309
금호타이어	2,931	현대제철	-10,459

	외 국 인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119,062	음식료	-1,265
기타금융업	102,137	기계	-717
화학	73,944	운수장비	-67
SK하이닉스	69,344	고려아연	-8,674
KB금융	43,159	롯데케미칼	-4,850
S-Oil	40,865	한국타이어	-4,822
SK이노베이션	29,453	GS리테일	-3,476
하나금융지주	29,368	기업은행	-3,185
신한지주	23,100	KODEX 인버스	-2,871
TIGER 200	18,322	현대해상	-2,826
한국전력	15,560	TIGER 200선물인버스2X	-2,661
NAVER	15,469	SK네트웍스	-2,537
LG전자	15,417	현대백화점	-2,50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2,263	비금속	-4,161	사업지원	215	제약	-5,042
의료,정밀기기	1,403	반도체	-1,825	금속	91	인터넷	-3,893
소매	396	방송서비스	-1,273	통신서비스	23	방송서비스	-2,762
휴젤	1,227	앤디포스	-3,352	파라다이스	485	카카오	-3,894
인바디	708	CJ E&M	-1,432	대봉엘에스	322	셀트리온	-3,019
유니테스트	594	모바일어플라이언스	-1,105	이지바이오	310	CJ E&M	-2,513
연우	522	파라다이스	-898	지트리비엔티	285	메디톡스	-917
에스에프에이	428	클리오	-877	ISC	262	아모텍	-58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19	화학	-156	반도체	1,134	비금속	-1,382
금속	158	IT부품	-153	기계,장비	943	IT부품	-603
금융	101	음식료,담배	-135	디지털컨텐츠	513	의료,정밀기기	-410
테스	469	에프엔에스테크	-197	SK머티리얼즈	887	앤디포스	-1,282
티에스인베스트먼트	101	솔브레인	-79	컴투스	606	피에스텍	-512
성광벤드	77	서한	-49	에스에프에이	566	이지바이오	-379
나이스정보통신	65	텍셀네트컴	-47	테스	349	원스	-354
영풍정밀	57	삼지전자	-46	휴젤	254	남화토건	-26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837	비금속	-5,890	방송서비스	6,093	인터넷	-4,164
디지털컨텐츠	2,106	인터넷	-4,890	IT부품	5,269	오락,문화	-1,828
제약	1,742	소프트웨어	-3,725	소프트웨어	3,545	음식료,담배	-1,584
휴젤	3,839	카카오	-5,025	CJ E&M	5,850	카카오	-4,069
SK머티리얼즈	2,282	앤디포스	-4,903	아모텍	4,463	SG&G	-1,844
에스에프에이	1,426	모바일어플라이언스	-3,458	메디톡스	1,673	SK머티리얼즈	-1,471
유니테스트	1,249	CJ E&M	-2,407	오스템임플란트	1,399	뉴트리바이오텍	-1,203
테스	1,130	아모텍	-1,701	테스	1,041	대주산업	-1,082
컴투스	962	메디톡스	-1,595	안랩	945	광림	-1,075
모두투어	835	셀트리온	-1,416	클리오	938	뷰웍스	-988
티씨케이	675	파라다이스	-1,219	원익IPS	872	포스코 ICT	-921
에스티아이	645	클리오	-1,093	에스에이엠티	765	인터파크	-919
웹젠	643	주성엔지니어링	-1,063	툽텍	760	파라다이스	-89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조선선재	24 일	KPX케미칼	31 일
세방	24 일	삼성SDI	27 일
지엠비코리아	18 일	환인제약	23 일
삼양식품	17 일	세아제강	22 일
동양고속	16 일	대동공업	21 일
ARIRANG 스마트베타 Value	12 일	LG화학	16 일
신대양제지	12 일	쌍용차	16 일
KG케미칼	12 일	힐라코리아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금강철강	27 일	경동제약	30 일
아트라스BX	27 일	진로발효	29 일
AP위성	26 일	예림당	23 일
KH바텍	25 일	고영	19 일
영풍정밀	22 일	클리오	16 일
레이언스	15 일	이크레더블	16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5 일	한스바이오메드	14 일
인터파크	13 일	평화정공	1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74,876	삼성전자	135,752
KT	30,919	LG전자	113,799
SK	26,072	SK하이닉스	100,126
KODEX 200	20,237	TIGER 200	87,498
GS건설	18,703	KB금융	87,234
현대미포조선	16,468	아모레퍼시픽	59,632
미래에셋대우	13,854	삼성SDI	57,767
대림산업	12,931	SK이노베이션	56,524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머티리얼즈	6,898	CJ E&M	31,084
웹젠	6,042	메디톡스	11,360
에스에프에이	4,702	아모텍	8,117
이오테크닉스	3,942	홈캐스트	5,123
테스	3,903	컴투스	4,600
위메이드	3,392	고영	4,013
코미팜	3,224	DMS	3,929
모두투어	2,930	원익IPS	3,747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2,151	68,583 70,734
증권		11,555	9,558 21,113
건설업		1,931	7,129 9,059
SK하이닉스		14,270	69,344 83,614
KODEX 레버리지		41,723	5,722 47,445
S-Oil		4,137	40,865 45,002
NAVER		12,714	15,469 28,183
신한지주		1,404	23,100 24,504
삼성전기		11,115	7,523 18,638
LG전자		1,679	15,417 17,096
엔씨소프트		1,115	12,990 14,105
미래에셋대우		5,846	6,805 12,651
한화테크윈		894	11,055 11,949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742	2,924 4,666
반도체		2,837	1,024 3,860
기계,장비		1,446	2,080 3,526
휴젤		3,839	201 4,039
테스		1,130	1,041 2,171
안랩		66	945 1,011
토탈		202	760 962
NICE평가정보		390	458 848
레이언스		209	556 765
대아티아이		67	538 605
오스코텍		406	193 599
넥슨지티		356	230 586
에코프로		474	107 58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TIGER	39 일
단기선진하이일드(합성,H)	34 일	코스피고배당	
한솔홀딩스	30 일	동양고속	24 일
만호제강	20 일	세화아이엠씨	23 일
현대EP	19 일	KPX홀딩스	23 일
대상홀딩스	18 일	코리안리	19 일
아세아	16 일	강남제비스코	18 일
현대글로벌비스	15 일	대양고속	17 일
문배철강	15 일	동일산업	1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알엔투테크놀로지	41 일	씨엠에스에듀	39 일
동양파일	32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4 일
효성오앤비	25 일	인터파크	23 일
선광	24 일	파크시스템스	19 일
아이디스	20 일	아이디스홀딩스	17 일
하이텍팜	20 일	삼아제약	16 일
한화MGI스팩	17 일	나라엠앤디	15 일
파인디지털	17 일	코렌텍	1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25,948	고려아연	-51,194
LG화학	-88,888	한국전력	-12,526
TIGER 200	-88,086	삼성엔지니어링	-11,561
현대모비스	-54,470	호텔신라	-10,113
현대차	-45,974	한국타이어	-9,818
KODEX 인버스	-44,514	한미약품	-9,400
KODEX 200선물인버스2X	-43,448	삼성화재	-9,296
아모레퍼시픽	-42,600	현대백화점	-8,636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3,124	카카오	-17,550
메디톡스	-11,084	셀트리온	-12,782
카카오	-9,835	파라다이스	-9,881
앤디포스	-5,633	SK머티리얼즈	-7,611
모바일어플라이언스	-4,723	휴젤	-6,235
뉴파워프라즈마	-3,154	디오	-5,072
재영솔루텍	-2,845	인바디	-4,154
셀트리온	-2,662	인터파크	-3,85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철강금속		-45,272	4,476 -40,796
미분류		-70,998	36,367 -34,631
유통업		-23,360	3,964 -19,396
KODEX 인버스		-31,523	-2,871 -34,394
KODEX 200선물인버스2X		-30,885	-462 -31,347
롯데케미칼		-24,065	-4,850 -28,915
고려아연		-12,932	-8,674 -21,606
TIGER 200선물인버스2X		-9,720	-2,661 -12,381
풍산		-6,142	-455 -6,597
한샘		-3,016	-1,858 -4,874
SK케미칼		-3,562	-763 -4,325
삼성엔지니어링		-3,363	-527 -3,891
대한유화		-2,484	-1,109 -3,59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4,890	-4,164 -9,053
비금속		-5,890	1,362 -4,528
오락,문화		-2,036	-1,828 -3,864
카카오		-5,025	-4,069 -9,094
앤디포스		-4,903	-14 -4,916
모바일어플라이언스		-3,458	-331 -3,789
파라다이스		-1,219	-893 -2,112
SG&G		-100	-1,844 -1,944
에스엠		-738	-858 -1,596
바텍		-136	-819 -955
디오		-58	-823 -881
게임빌		-18	-838 -856
제이스텍		-141	-682 -82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59	118,367
아모레퍼시픽	125	34,064
LG생활건강	23	18,709
POSCO	59	16,731
LG전자	217	13,967
현대차	82	11,907
KB금융	224	10,947
LG화학	41	10,80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133	11,127
셀트리온	75	7,407
파라다이스	270	3,678
오스템임플란트	21	1,076
CJ E&M	14	1,063
SK머티리얼즈	6	979
메디투스	2	950
에스엠	34	788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331	8,701,752
SK하이닉스	49,551	2,437,891
NAVER	1,771	1,417,173
POSCO	4,822	1,364,589
하나금융지주	31,705	1,184,171
LG생활건강	1,344	1,075,533
아모레퍼시픽	3,936	1,072,498
KB금융	19,412	951,1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733	2,441,101
카카오	8,939	762,472
로엔	3,227	269,445
바이로메드	2,434	226,606
코미팜	5,888	197,235
메디투스	447	182,929
파라다이스	12,574	169,750
이오테크닉스	1,296	116,620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은행	26,408	기계	-106,264
기타금융업	23,083	운수창고	-7,772
전기전자	16,887	증권	-634
우리은행	25,458	두산인프라코어	-111,017
하나금융지주	14,735	CJ대한통운	-7,693
LG디스플레이	12,071	대우건설	-780
두산중공업	6,150	삼성증권	-650
삼성생명	5,002	KODEX 200 중소형	-600
한국타이어	4,935	한온시스템	-586
기아차	4,785	유안타증권	-472
KB금융	4,720	우리금융	-471
신한지주	3,537	LG유플러스	-448
삼성물산	3,095	한국토지신탁	-43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오락,문화	1,584	의료,정밀기기	-363
미분류	1,273	음식료,담배	-332
소프트웨어	723	전문기술	-282
파라다이스	1,230	포스코 ICT	-505
씨케이에이치	502	이지바이오	-480
지연코	449	에이치케이	-289
엠벤처투자	415	인선이엔티	-257
차이나그레이트	387	위메이드	-256
유지인트	371	동국S&C	-216
오성엘에스티	356	주성엔지니어링	-189
SGA	347	에스티아이	-181
스맥	300	아미노로직스	-172
SFA반도체	277	오스템임플란트	-172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7(화)	3/8(수)	3/9(목)	3/10(금)	3/13(월)
외국인	4,160.1	2,206.8	1,302.8	92.4	153.6	443.4	158.9	454.5
기관계	-3,503.2	-2,217.0	-1,207.3	100.0	-196.6	-617.5	-278.1	-215.1
(투신)	-1,582.1	-112.1	-132.0	25.6	-42.4	-39.9	-40.2	-35.1
(연기금)	660.8	54.8	45.1	28.3	19.5	-18.8	18.1	-1.9
(은행)	-267.2	-18.0	1.6	10.2	1.8	-3.1	-3.2	-4.1
(보험)	-49.2	-29.0	-16.1	12.9	-20.6	-0.3	-1.9	-6.3
개인	-2,116.3	-429.4	-380.1	-246.1	-17.4	110.5	55.3	-282.4
기타	1,459.4	439.6	284.6	53.7	60.4	63.6	64.0	43.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3/6(월)	3/7(화)	3/8(수)	3/9(목)	3/10(금)
KOSPI	1,961.3	2,026.5	2,117.6	2,081.4	2,094.1	2,095.4	2,091.1	2,097.4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1,692.2	22,119.5	21,271.4	21,391.1	21,410.3	21,692.3
(증감액)	6,853.1	58.8	-22,754.4	158.9	-848.1	119.7	19.2	282.0
(회전율)	28.8	24.8	36.0	31.2	30.4	31.4	36.0	41.2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8,997.7	139.3	-707.2	-0.9	-184.5	255.1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105.7	3,135.4	3,111.0	3,111.2	3,105.7	3,117.1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3,872.3	3,926.5	3,887.5	3,865.5	3,872.3	3,881.1
미수금	151.0	125.6	94.0	110.0	123.7	119.8	94.0	91.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3/3(금)	3/6(월)	3/7(화)	3/8(수)	3/9(목)
전체주식형	70,836	-3,212	-556	-114	-39	-217	-173	86
(ex.ETF)		-2,378	-301	-84	-36	-28	-65	-54
국내주식형	53,414	-2,816	-498	-114	-31	-216	-158	101
(ex.ETF)		-1,988	-243	-84	-28	-27	-50	-39
해외주식형	17,422	-396	-58	0	-8	-1	-15	-15
(ex.ETF)		-390	-58	0	-8	-1	-15	-15
주식혼합형	7,911	-156	2	-2	1	-3	-8	-6
채권혼합형	24,741	-1,831	-114	-7	-24	-27	-25	-29
채권형	104,013	-56	257	-90	27	58	-88	-27
MMF	126,021	21,443	2,522	1,142	2,997	875	422	-4,39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7(화)	3/8(수)	3/9(목)	3/10(금)	3/13(월)
한국	3,557	1,915	1,130	80	133	382	138	396
대만	2,405	-656	-418	45	40	-342	-161	-
인도	2,846	1,288	960	133	536	290	-	-
인도네시아	-87	48	38	7	18	12	1	-
태국	-230	-301	-138	-69	-24	-9	-37	-
남아공	-1,713	-305	-338	47	-171	-164	-50	-
필리핀	-130	-32	-16	3	-6	-1	-12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3/7(화)	3/8(수)	3/9(목)	3/10(금)	3/13(월)
회사채 (AA-)	2.14	2.26	2.26	2.27	2.26	2.25
회사채 (BBB-)	8.27	8.46	8.46	8.47	8.47	8.46
국고채 (3년)	1.64	1.78	1.78	1.79	1.78	1.76
국고채 (5년)	1.80	1.99	1.98	2.00	2.00	1.99
국고채 (10년)	2.08	2.31	2.30	2.32	2.32	2.30
미 국채 (10년)	2.56	2.52	2.56	2.61	2.57	-
일 국채 (10년)	0.06	0.08	0.08	0.10	0.09	-
원/달러	1,210.50	1,146.10	1,145.50	1,158.10	1,157.40	1,144.40
원/100엔	1,030.04	1,004.47	999.30	1,009.06	1,003.38	992.11
엔/달러	117.52	114.10	114.63	114.77	115.35	115.35
달러/유로	1.05	1.06	1.06	1.06	1.06	1.06
DDR3 1Gb (1333MHz)	1.15	1.21	1.20	1.20	1.20	-
DDR3 2Gb (1333MHz)	1.50	1.85	1.85	1.85	1.85	-
NAND Flash 16Gb (MLC)	1.87	2.19	2.23	2.28	2.28	-
CRB 지수	193.97	189.40	186.41	184.57	184.00	-
LME 지수	2,663.2	2,800.4	2,795.0	2,771.4	2,785.5	-
BDI	961	1,033	1,045	1,064	1,086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3.14	50.28	49.28	48.49	-
금 (달러/온스)	1,131.35	1,216.65	1,209.20	1,206.55	1,202.6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美> 1월 내구재 주문 (2.0%, 1.0%, 1.8%) 1월 제조업수주 (1.2%, 1.0%, 1.3%) 中> 중국 전인대(5일)	美> 1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8.5, -48.5, -44.3) 유럽> 4Q GDP SA QoQ (0.4%, 0.4%, 0.4%) 4Q GDP SA YoY (1.7%, 1.7%, 1.7%)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3.3%, n/a, 5.8%) 2월 ADP 취업자변동(천명) (298, 185, 246) 1월 도매재고 MoM (-0.2%, -0.1%, -0.1%) 中> 2월 수출 (-1.3%, 14.0%, 7.9%) 日> 1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65.5, 270.0, 1112.2) 4Q GDP 연간화 SA 전분기대비 (1.2%, 1.5%, 1.0%)	韓> 선물/옵션 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3, 238, 223) 中> 2월 CPI YoY (0.8%, 1.7%, 2.5%) 2월 PPI YoY (7.8%, 7.7%, 6.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0.4%, -0.4%, -0.4%)	美> 2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00, 227) 2월 실업률 (n/a, 4.7%, 4.8%)
13	14	15	16	17
美> 미국 섬머타임 시작 日> 1월 핵심기계수주 MoM (-3.2%, -0.1%, 6.7%) 2월 PPI YoY (1.0%, 1.0%, 0.5%) 1월 3차 산업지수 MoM (0.0%, 0.1%, -0.4%)	美> 2월 PPI 최종수요 MoM (n/a, 0.1%, 0.6%) 유럽> 3월 ZEW 서베이 (n/a, n/a, 17.1)	韓> 2월 실업률 (n/a, n/a, 3.6%) 美> FOMC 금리 결정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3.3%) 2월 CPI MoM (n/a, 0.0%, 0.6%) 2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1%, 0.4%) 日> 1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8%)	美> FY2018 예산안 발표예정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43) 2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60, 1246) 日> BOJ 통화정책회의 (n/a, -0.1%, -0.1%) 유럽> 2월 CPI YoY (n/a, n/a, 1.8%)	美> 틸러슨 외무장관 방중(18일) 3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243) 2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0.3%) 2월 선행지수 (n/a, 0.4%, 0.6%) 유럽> G20 재무장관 회의(~18일)
20	21	22	23	24
日> 증시 휴장(춘분의 날)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2월 기준주택매매(백만) (n/a, 5.60, 5.69) 日> 1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3%)	美> 옐런의장 연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2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65, 555) 유럽>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n/a, -6.2)	美> 2월 내구재주문 (n/a, n/a, 2.0%) 3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4.2) 日> 3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53.3) 유럽> EU 정상회담(25일) 3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5.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